

## 경축년 자료에 대한 2 월 피정, 부세에서 우간다



2025 년 2 월 24 일 화요일, 부세사 공동체 수녀들은 경축년 자료와 관련된 두 번째 피정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로즈 마리 쿠세메레르와 수녀님이 이 피정을 이끌었습니다. 수녀님은 흰색 천, 아름다운 꽃, 그리고 세 개의 양초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선교 정신의 모범인 성모님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의 중앙에 성모상을 놓았습니다.

피정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파견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브라질 수녀님들이 정리해준 선교 정신에 관한 글을 묵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자료에서 수녀님들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한 수녀님은 선교 정신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수녀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종교적 소명을 실천해 나가면서, 초대 수녀님들처럼 선교 정신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은총을 항상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세상을 포용하고, 현실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선교 정신을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으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힘과 계획에 의존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수녀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분의 사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피정이 끝난 후, 브라질 수녀님들의 요리법으로 만든 특별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식사에는 구운 돼지고기, 구운 닭고기, 밥, 부드러운 우갈리 감자칩, 그리고 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동안, 브라질 수녀님들과 일치되어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즐겼고, 브라질 수녀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피정 자료를 준비해 주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를 제안해 주어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로즈 마리 쿠세메레르와 수녀